

# 살면서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요약본

### Module 1. 변호사 도움 없이 민사 분쟁 해결하기

#### 지급명령으로 소송비용 절약하기

- 1)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절차)의 개념절이름
- 2) 지급명령의 신청
-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4)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5) 채무자의 이의신청

## 1.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절차)의 개념

### 1) 의의

독촉절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특별소송절차이다.

### 2) 특성

가. 신속하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독촉절차는 확정시까지 2개월이면 충분하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단시간 내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나. 간이하다.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하고 주장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입증이 아닌 소명만으로 충분하여 절차가 간이하다.

※ 소명은 “그럴 것 같다”, “그럴 수 있겠다”는 정도의 입증으로서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요구되는 증명보다 엄격하지 않은 입증이다.

다. 소송절차의 선행절차이다.

지급명령이 발부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므로 소송절차의 선행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라.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에 대한 청구절차이다.

청구 대상이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라든가, 특정물에 대한 권리의 다툼(예컨대 누가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가?)은 독촉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마. 저렴하다.

인지대가 같은 금액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에 비해 1/10이며,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변론절차가 필요 없어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에 선임할 수 있다.

※ 인지대 : 인지의 값을 의미한다. 소송을 제기 하려면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일정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소장에 붙여야 한다. 이는 쉽게 말해 재판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 2. 지급명령의 신청

### 1) 관할법원

일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관할과 동일하며 금전청구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대부분 틀리지 않는다.

주소지 관할법원 검색은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http://slseobu.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 2) 지급명령의 요건(민사소송법 제462조)

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가) 간이한 절차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

나)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기만 하면 그 발생원인이 어떠한가도 묻지 않는다.

다) 변제기에 이르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변제기 :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 쉽게 말해 돈을 주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한다.

나.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일 것

가) 국내에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므로 채무자의 송달장소가 대한민국 이외의 곳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송달 :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행위이다.

민사소송이 본격화 되려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 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송달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송달은 법원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절차이다.

※ 소장 :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상대방이 실제로 송달을 받지 못함에도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 이용된다. 법이 정한 여러 송달방법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이 송달방법으로 허용됨에 반하여 독촉절차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공시송달은 실제 상대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본 것이 아니어서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 3)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가. 지급명령의 신청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우리는 “소(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앞서 “재판”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재판”이란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 즉 재판은 판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 명령 등 형태가 다양하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판결인데 판결은 변론을 거친 경우에 공개법정에서 선고하는 형식으로 공표되는 것을 말한다.

소는 법원에 “판결”을 해 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소송”보다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은 판결, 결정, 명령 등 다양한 형태의 재판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통상 우리가 “일반 민사소송 절차” 또는 “통상의 소송절차”라고 하면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판결의 형식은 아니지만, 지급명령 신청절차에 대하여 법이 특별히 규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인 “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지 급 명 령 신 청

①채 권 자      박 남 정(540108-1002255)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3

채 무 자      변 진 섭(531228-1546158)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6

#### ②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100,000,000 원

#### ③독촉절차비용

금 69,660 원(인지대 : 45,500 원, 송달료 : 24,160 원)

#### ④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 ⑤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09. 1. 1. 채무자에게 금 1 억원을 변제기를 2009. 3. 1.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⑥
2. 그런데 채무자는 변제기를 5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⑦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⑧

### ⑨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1 통
1. 사실확인서 1 통
1. 신청서부분⑩ 1 통
1. 납부서⑪ 1 통

2009. 7. 23.

위 채권자 박남정(인)

### ⑩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 ① 당사자 표시

독촉절차에서 당사자의 표시도 앞서 배운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처럼 원고, 피고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이다. 소송서류 송달의 원활을 위해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며 주간에 회사에 있어 주소지에서 문서를 수령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바로 아래에 "송달장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9"와 같은 형식으로 실제 수령이 가능한 곳을 기재한다.

#### ② 사건명의 표시

대여금, 어음금, 손해배상금 등 청구의 성질에 따라 사건명을 기재하고 청구금액에는 받을 돈의 원금을 기재한다.

#### ③ 독촉절차비용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법률사무소처럼 직업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는 한 복잡한 인지대, 송달료의 계산법은 배울 필요가 없다. 금액란은 비워 두고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해 달라고 하여 계산해주면 접수하기 전에 금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한다.

#### ④ 신청취지

채권자가 원하는 "재판의 주문"을 기재하는 곳이다. 독촉사건의 경우 위 서식에 각각의 청구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단, 위 사안은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별도로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약정이율이 연20% 미만인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돈을 빌려준 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18%(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 약정이율이 연20% 이상인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〇〇년 〇〇월 〇〇일부터(돈을 빌려준 날) 완제일까지 연 25%(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 ⑤ 신청이유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원인부분이다.

#### ⑥ 채권의 발생원인 부분

채권자가 어떤 사유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 지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한다. 당사자, 일시, 내용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 ⑦ 채권 발생 후 경위 부분

채권 발생 후 경과를 기재한다.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행태, 소송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 ⑧ 결론 부분

신청취지 기재내용을 인용하여 작성한다. 즉 채권자가 요구하는 재판에서의 결론은 신청 취지와 같이 재판을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본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는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연간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고 있다.

#### ⑨ 소명방법

독촉절차에서는 “입증”이 아닌 “소명”으로 족하다. 소명은 “그럴 것 같다”, “그럴 수 있겠다”는 정도의 증명으로서 입증보다 엄격하지 않은 증명이다. 소명방법이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는데 사안에서는 “인터넷뱅킹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

#### ⑩ 신청서부분

신청서는 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부는 법원이 보관하고, 2부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⑪ 납부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면 교부해주는 납부영수증을 말한다. 이를 신청서에 붙여서 법원에 제출한다.

⑫ 관할법원

금전관계 소송에서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 4.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는 변론 또는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기초하여 재판한다.

### 1) 신청각하

- 가. 신청이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 나. 신청에 관할위반이 있거나
- 다. 신청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흠결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 2) 지급명령

- 가. 각하사유가 없으면 더 나아가 청구가 정당한가의 여부를 심리할 필요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한다. 지급명령을 송달할 때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불복) 할 수 있음을 기재한 이의신청안내서를 함께 보내는 것이 실무이다.

- 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된 공정증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용증만 가지고 가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경매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갈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증명일 뿐 채무자가 그 뒤에 돈을 갚았을 수도 있고 차용증이 위조된 것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분쟁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 채무자는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데 강제로라도 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집행권원"이다. 일반적으로 "확정된 판결"이 집행권원이 되며, 이번 차시에서 배운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 된다. “확정된 판결”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인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절차를 통해 이를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경매를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5. 채무자의 이의신청

### 1) 이의(異議)신청의 의미, 효과

지급명령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에서처럼 당사자 쌍방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채권자가 제출한 일방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내려진 것이므로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한 범위에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訴)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 2)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에 한다.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되고 그 이유나 근거를 밝힐 필요는 없다. 즉 “지급명령에 불복하기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

### 3) 이의의 조사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한지를 조사하여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가장 흔한 예는 지급명령을 수령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의가 적법한 경우에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된다.